

초보농부 농사짓기 앱에게 물어봐

정보 공유·시세 확인 등 클릭 한번에...농협 '콕팜2.0' 출시 병해충 예보·검색 시스템으로 농작물 관리 손쉽게 해결

농협과 농업관련 정부기관들이 농업기술 개발과 영농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농업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들을 출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물론, 영농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귀농·귀촌 인구 등 '새내기 농업인'과 '도시농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협의 '콕팜2.0' =농협은 최근 농촌지역 농업인과 도시민을 연결해주고 농업인들의 영농생활도 돕는 농업용 앱을 새롭게 출시했다.

9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7월 30일 '콕팜2.0'을 출시했다. 기존 농업인 전용 서비스 앱 '콕팜' 2.0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NH콕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한 뒤 '콕팜'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콕팜은 농업인에게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고객에게는 농업·

농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선 콕팜을 이용하는 조합원 회원은 '조합원사랑방'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농협의 소식과 지역 내 경조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농협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협이 용실적' 화면을 통해 출차·배당, 농산물출하 내역, 영농자재 구매내역, 면세유 현황도 즉시 확인 할 수 있어 영농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농업인 지원제도' 메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지원제도와 혜택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그동안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어도 소식을 듣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33개 도매시장의 실시간 경매시세도 제공한다. 농업인들은 수시로 시세를 확인하면서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농업인들에게 알람메시지를 보내준다.

또 실제 농사를 짓는 조합원들의 자신의 '영농기법'을 알려주거나 효과적인 영농기술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공간도 마련돼 있다. 본인이 직접 특정 비료나 농약을 사용해보거나 병해충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이를 동영상과 사진, 글 등으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콕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조합원과 고객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작물 병해충 예방·관리도 스마트폰으로 = '초보 농사꾼'에게 농작물 병해충과 관련한 문제는 큰 난관이다. 농작물에 병이 발생해도 어떤 병인지, 무엇이 원인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데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에도 문제를 겪는다.

이를 위한 앱으로는 국가농림기상센터의 '농작물 병해충 예보 시스템'이 있다. 기상청 수치예보모델(Unified model)을 활용해 지역별 농작물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

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숙지할 경우 사전에 대처할 수 있다.

벼, 사과, 배, 고추 등 4가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해충 발생 달력도 있어 쉽게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또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를 지도로 표시해 주고 해당 병해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영농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앱으로는 '스마트 병해충 검색 시스템'이 있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랭킹 순으로 보여줘 사용자가 검색결과를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과나 포도, 감, 배, 딸기 등 본인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선택한 뒤 비슷한 병해충 현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찾으면 처방농약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병해충 정보에는 해당 병해충에 대한 증상, 처방, 발생환경, 약제처방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며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농촌진흥청에 전화연결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원화가치 상승 외인 1조 순매수 미·일 전기차 공급 확대 정책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약진 중장기 투자자 음식료주 관심을

9월 들어 국내증시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현재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는 역시 원 달러 환율이다. 지난달 마지막 주 코스피지수의 강한 상승은 원화가치가 상승하며 외국인인 1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오후 2시를 넘기며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급락 전환했다. 하락원인은 역시 환율이다. 중국수입물품 2000억달러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협상이 난항을 보이자 외국인의 실감매물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전체적으로 출회됐고 터키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환율이 상승하며 이머징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머징권가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갈등과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유동성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지 않아도 환율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증시는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극도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추세적인 수급보다는 환율과 재료에 일회일비하며 단기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증시에서 산업이 성장하며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역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라 할 수 있다. 배터리 관련주는 고객들과 상담시 뿐만 아니라 주간증시포커스에서 여러 차례 추천했었다.

일본정부가 2050년까지 해외에서 판매되는 일본업체들의 승용차를 모두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로 교체하고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2010년 대비 90%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교통부도 2030년까지 전기차 신차 판매비율을 최소 50%이상에서 70%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도 트럼프대통령의 반대에도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 의회가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클린에너지) 전력 조달 100%의 법안 SB100를 확정했다. 캘리포니아는 전세계의 환경 관련 기준과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보다 여러면에서 후발주자인 인도정부는 전기차구매 보조금을 기존 70억루피(9900만 달러·약 1120억원)에서 550억루피(7억8000만 달러·8736억원)으로 7배 상향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자동차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일 수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 비해 한국은 전기차 생산능력 및 보급율이 매우 낮아 일상생활에서 실감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하지만 지난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최근 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디젤차량 화재 등을 보면 전기차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상승으로 가격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언제 매도할 것인가'라는 고민보다는 '얼마나 낮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시기라고 보인다. 또 추격매수가 어렵고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국내 경기침체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음식료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계두

(주인투티자증권 광주지점장)



전남 농협, 축산 환경 개선 앞장선다

축산환경개선 실천 협약식 냄새 저감제 무상 공급 등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7일 나주 농협사료 전남지사(지사장 이찬호)에서 지역 축산농가와 함께 '축산환경개선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농가 중 냄새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 2개월간 냄새저감 효과가 탁월한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 축산환경 개선과 냄새

저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전남농협과 농협사료 전남지사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환경개선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 냄새발생 원인을 측정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할 예정이다. 박태선 본부장은 "최근 축산업이 환경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 차원에서 축산 냄새저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추석맞이 특별 직거래 장터 개장

지역 우수 농산물 값싸게 판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추석을 맞아 특별 직거래 장터를 열고 명절선물 판매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추석맞이 특별장터는 오는 12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지방경찰청과 18일 동구 광주지방경찰청 앞마당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떡메치기와 인절미 시식회,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볼고기 시식회 등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관원 전남지원, 유해물질 분석능력 국제 인증

英 국제속력도 평가 프로그램서 잔류농약 등 9회 연속 적합 판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종신)은 영국 식품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제속력도프로그램 'FAPAS'에 참여해 적합 판정을 받아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원이 실시하는 국제 비교속력도 평가 프로그램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 세계 각국 정부기관과 민간 연구소 등에서 매년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식품 중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

생물에 대한 '국제 비교 속력도'를 평가했으며 전 세계 283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분석 평가에 참여해 3개 분야 모두 '적합' 판정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9회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박종신 지원장은 "세계적 명성이 있는 국제공인 분석능력평가로 통해 전문성과 분석 신뢰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도 강화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에 대비해 농산물과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